인 사 말

강 경 선

제14대 학회회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본 학회는 1986년 설립된 이후, 13분의 학회장님들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학회 발전에 공헌하신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학회의 제14대 회장에 선출되어,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많은 부담도 있고, 또한 저의 부족함도 잘 알고 있기에 2년간의 저의 임기를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학회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분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기간에 가장 많은 수의 닭을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는 비싼 가격으로 계란을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으나, 아직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를 유발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공중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향후 관련 당국은 백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계란과 닭값의 폭등으로 서민 경제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구제역이 동시 다발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백신 사용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방역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 식품의 경우, 살아 있는 동물이 농장에서부터 잘 관리되어야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의 식탁에 올릴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용동물의 질병 발생이 방역 당국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 방역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시적 접근보다는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문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올바른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소비자들과 정부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담당 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고, 소비자들에게 잘못 인식된 부분을 명확히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담당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회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학자님들과 연구원 및 학생들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으로써의 역할도 저희 학회가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학회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저희 학회를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